

수능 최종 모의평가 의미와 대처법 난이도·자신 실력 가늠 입시 전략 최종 점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수능능력시험 모의평가가 3일 광주·전남 등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수능의 난이도와 자신의 실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9월 모의평가는 '수능의 최종 리허설'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시험이다. 특히 고3 재학생 및 재수생 등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이 모두 응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입시전문업체인 진학사의 도움말로 9월 모의평가의 의미와 시험 후 수험생의 대처법 등을 살펴본다.

◇난이도와 출제경향이 보인다=6월 모의평가가 수험생들의 실력을 점검한 테스트라고 한다면, 9월 모의평가는 실제 수능 문제의 난이도와 가장 유사하게 출제되는 시험이다. 때문에 수험생들은 9월 모의평가에서 틀린 문제를 빠짐없이 오답노트에 정리해야 한다. 또 이를 통해 실제 수능에서 유사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는 일이 없도록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체 수험생 중 나의 위치가 보인다=9월 모의평가는 재수생들이 응시하기 때문에 재학생만 시험을 치렀던 3, 4월 학력평가보다 더 객관적으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9월은 수능 학습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이어서 모의평가로 보는 성적분포는 더욱 객관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인의 위치를 파악해 둔다면 목표대학을 선택하는 것뿐 아니라 대학 내 학과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취약한 영역과 집중해야 할 영역이 보인다=모의평가를 통해 영역별로 본인의 점수와 석차를 확인하고 본인에게 맞는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목표대학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영역에 가중치를 두고 있다면, 해당 영역에서 더욱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학습량을 늘려야 할 것이다. 물론 취약영역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약점이 되는 영역 없이 끝고루 학습해야만 지원 기회가 많아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수시 지원 가능 대학이 보인다=모의평가 성적을 통해서 수시 모집 시기에 앞서 자신이 지원 가능한 대학을 가늠할 수 있다. 또한 어느 대학·전형에 지원할 것인지, 수시와 정시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고 준비해야 하는지 등 입시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될 수 있다.

학생부 성적이 우수하고 모의평가 성적이 좋지 않다면 목표하는 대학의 수시전형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

학생부우수자(100%)전형과 대학별고사 등 본인이 가진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능 준비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진학사 입시분석실 김희동 실장은 "9월 모의평가는 본인의 실력을 최종 점검하는 기회이므로 실제 수능을 치른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백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자전거 열풍에 사고도 속출

광주·전남 지난해 220건 ... 전년 보다 34% 늘어

노면 파손·단절 구간 등 기반시설 취약

고유가에 따른 자전거 '열풍'으로 인해 지난해 광주·전남의 자전거 사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경찰청이 발간한 '2009년관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의 자전거 사고 건수는 220건에 달했다. 이는 1년 전인 지난 2007년(164건)에 비해 34.2%(56건) 늘어난 수치로, 자전거 사고가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전거 사고 급증은 고유가와 '웰빙'을 타고 지난해부터 자전거 인구가 크게 늘고 있지만 자전거 전용도로 등 기반시설은 여전히 취약하기 때문에 풀이된다. 실제 광주시와 각 구청이 지난 4월 광주지역 내 자전거도로 전 구간인 418km를 조사한 결과 노면파손과 단절구간 등으로 인해 자전거를 타기에 부적합 것으로 드러났다. 항목별로는 노면정비가 필요한 곳이 92곳, 자전거도로를 잇는 보도의 턱이 높아 자전거를 타기 힘든 단절구간이 197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돼 사후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광주·전남은 지난해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총 100명으로, 1년 전(63명)보다 58.7%나 증가했다. 반면 자전거를 제외한 차량이나 오토바이 탑승자의 사망 사고는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남은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가 1만443건으로, 2년 연속 소폭 감소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광주는 지난해 사고건수가 되레 늘어나면서 4년 연속 '교통사고 1위 도시'란 오명을 썼다. 지난해 광주의 교통사고는 총 8천269건으로, 1년 전(7천913건)에 비해 4.5%(356건) 늘었으며, 사망자는 140명에 이른다. /최경호기자 choice@



2일 광주시 광천동 유-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신종플루 예방캠페인'에서 전주형 서구청장이 시민들에게 손 소독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주고 있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 장비이 2일 부대내 관사에서 거주하는 가족을 상대로 체온을 재고 있다.

헌혈 줄어 수혈 비상

신종플루 여파 헌혈자 급감

신종플루가 확산하면서 헌혈이 줄어들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2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헌혈이 감소하기 시작해 매일 1천200명 가량 헌혈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올 6~8월 3개월간 헌혈자 수는 6만 5천520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6만9천95명에 비해 5.1%(3천575명)가 감소했다. 특히 헌혈 감소는 단체가 아닌 개인 헌혈이 줄어들어 따른 것이어서, 총 헌혈의 60%를 개인 헌혈(단체헌혈 40%)에서 총당하고 있는 광주·전남혈액원에서는 신종플루가 장기화될 경우 혈액 부족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단체헌혈의 경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줄어들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에서는 9월 초 계획된 12건 중 단 한 건의 취소도 없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다. /최희호기자 chae@kwangju.co.kr

군부대 방역 총력전

신종플루 차단 대책반 운영

신종플루 확산으로 집단생활을 하는 군부대에도 비상이 걸렸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은 신종플루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부대 지휘관과 참모로 구성된 특별관리대책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외출·외박을 다녀온 장병과 부대 방문자, 관사 가족을 대상으로 부대 출입 때마다 체온을 측정하고 있으며 초기 발견을 위해 모든 장병에게 온도계를 하나씩 지급했다. 1전비 관계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하루 8번 이상 손을 씻도록 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체온 측정과 방역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육군 31사단도 휴가·외출자를 포함한 장병은 물론 주말 면회객 등 모든 출입자를 대상으로 체온을 재고 있으며 경계 근무자들에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했다. 31사단 간부들은 식사 때마다 부대원들이 손을 씻도록 하고 있으며 점호 시간에도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06분 해질 18시 57분 달돋이 18시 04분 달질 04시 32분

기온속으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았다.

광주	맑음	18/30℃
목포	맑음	19/28℃
여수	맑음	20/28℃
완도	맑음	19/29℃
구례	맑음	16/31℃
해남	맑음	16/29℃
장흥	맑음	16/29℃
고흥	맑음	18/28℃
순천	맑음	17/31℃
영광	맑음	17/29℃
진도	맑음	18/29℃
전주	맑음	16/30℃
남원	맑음	15/30℃
목산도	맑음	21/27℃

지역별 날씨: 서울, 인천, 대전, 광주,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청,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지역	바다	중양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0.5~1.0m	☀	경고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2.0~4.0m	☀	경고	보통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0.5~1.0m	☀	보통	보통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2.0~4.0m	☀	보통	보통

◇주간날씨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4(금)	5(토)	6(일)	7(월)	8(화)	9(수)
날씨	☀	☀	☀	☀	☀	☀
최저/최고	19/30	20/30	20/31	20/30	19/29	19/29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과 젊음이 있는 대학!!
광신대학교
남원로 학사동 603-1114 / 대학원 605-1115

하남산단 '악취' 민원 쇄도

광주 대표적 산업단지인 하남산단(이하 하남산단) 인근 주택 단지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광산구는 주요 악취 배출 업체 파악에 나서서 한편 악취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2일 광주시와 광산구에 따르면 광산구 하남산단 주변 수완지구와 운남지구, 하남2지구 아파트 주민들이 공장 악취 때문에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지난해 32건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지난해 말까지 50여 건이 접수됐다. 광산구 관계자는 "올들어 접수된 63건의 악취 민원 대부분이 하남산단과 관련된 것으로 특히 수완지구 입주주민들은 야간에 악취가 진동한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와 광산구는 이에 따라 하남산단에 입주해 있는 공장 922개 중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악취배출업체에 대해서 야간 악취를 측정하고, 악취가 심한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에 들어갔다. 또 전남대환경연구센터에 악취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가 나오는 연말께 악취관리법에 따른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산단 내 4개 지점에서 매일 1차례 악취를 측정해 심한 경우 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

"영광원전 보상 적다" 소송 고창 어민들 패소

전북 고창지역 어민들이 "어업 손실 보상액이 적다"며 영광원자력발전소를 상대로 제기한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대부분이 패소했다. 광주지법 민사3부(부장판사 이용구)는 2일 고창군 M어촌계와 어민 56명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54명에 대해 각하 또는 기각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모(61)씨 등 원고 14명은 '보상합의서와 각서 등을 통해 보상금 청구에 대해 해소하지 않았고 합의했기 때문에 부적법하다'고 소송을 각하했으며, 원고 40명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모(50)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양식생물이 살고 있음에도 현장조사에서 누락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각각 69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경호기자 choice@

50th 50주년 기념

사랑을 만들어가는 50명이 있습니다.

사랑과 희망으로 크는 국제약품-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하겠습니다!

50년을 함께해온 국제약품의 사랑과 희망- 그 속에 늘 고개 여러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저희 국제약품 510명은 가장 좋은 약은 "사랑"이라는 신념으로 이땅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참여한 지난 50년- 그 마음, 그 신뢰감, 그 사랑 그대로 50년, 100년 고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http://www.kukjeopharm.co.kr

코엔자임 Q10 함유 항산화영양제 국제-에이스 큐텐 연질캡슐

비타민 A, C, E의 보급
- 독해피로, 일산, 수박기, 병후-복합, 허약, 저하시, 노년기
- 눈의 건조감과 명화, 야맹증
- 햇빛 피부병 등에 의한 색소침착(미, 주근깨)의 예방, 인공눈물, 비출혈 예방
- 알츠하이머병 및 경각시, 다중 중실의 완화, 허약, 피로, 수족저온, 수족감동

아연의 보급